

그보다 크니라

- * 날짜 : 11월 23일
- * 찬송 : 276장
- * 기도 : 구역원 중에서
- * 말씀 : 누가복음 7:28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 글을 읽고 질문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한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했던 세례요한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이 분이라고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했던 세례요한이, 이제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질문) 왜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한 것인가?

▶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고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근거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는 없기 때문이다.

(질문)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두 세례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오해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우리의 신앙심은 깊어지지만, 더불어 예수님에 대한 허상도 생긴다.

(질문) 자기확신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더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조차도 자기 지식과 이해 관계에 얽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이처럼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가치관 역시 말씀에 기초한 영적인 깨달음과 믿음에 근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다.

(질문) 내 신앙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 찬송: 288장

* 합심기도

1.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볼 수 있도록..
2. 여호와를 기다림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삶의 변화를 통해 날마다 성숙해지는 새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3. 2025년 구역식구들이 서로 밀가지로 섬기며 격려함으로, 구역예배가 따뜻한 가족 같은 모임이 되도록..
4. 조수교회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작성: 이성실)